

Guest Editorial: 노인복지 실현을 위한
의(醫/衣) · 식(食) · 주(住) 접근

이 신 숙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었다. 그러나 벌써부터 우리 주변은 고령화로 인하여 파생된 여러 가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가정에서는 가장 윗세대로부터 가장 아랫세대에 이르기까지 4대가 공존하는 세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에서는 저 출산현상과 더불어 급속하게 증가한 노인인구로 인한 노인 쓰나미(silver tsunami: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6년부터 태어난 세대를 소위 baby boomer라고 하는데, 그들이 62세가 된 2008년부터 사회보장서비스 수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고, 또 그들이 65세가 된 2011년부터는 노인인구도 갑자기 증가하기 때문에 전문 의료인 양성이나 의료혜택 서비스를 준비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silver tsunami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현상을 경험하면서 고령화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들을 걱정하게 되었다.

상기의 guest editorial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540-742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413번지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신숙 교수 앞으로 하시기 바라며, 필자의 e-mail 주소는 lsi@sunchon.ac.kr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최대 염원은 장수이다. 장수의 염원 탓인지 구약성서 창세기에는 Adam이나 Enosh, Methuselah, Noah 등의 수명이 모두 900세가 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전한(前漢) 무제(武帝, BC156-87)가 통치하던 시절에 살았다는 삼천갑자 동방삭¹⁾ 이야기나 불로초를 구하라고 했던 진시황 이야기, 영생불사약을 만들려고 골몰했던 연금술사 이야기들도 모두 장수에 대한 인간 욕망의 표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술과 영양이 불충분했던 과거에는 평균수명이 최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즉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세계인들의 평균수명은 40세 미만이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와 유럽지역부터 평균수명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세계인의 평균수명은 1960년 50세, 1990년도 65세, 그리고 2001년도에는 67세로 늘어났다(Bloom, Canning, & Jamison, 2004). 물론 선진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 평균수명은 이미 80세를 넘어섰으며, 우리나라도 2006년도의 평균수명이 79.1세(남:75세, 여:82세)로 OECD국가의 평균(78.9세)을 앞지르게 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그러나 장수만이 능사가 아니다. 최근 장수로 인한 문제는 그리스 신화의 Tithonus²⁾ 이야기처럼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즉 건강하고 행복한 삶 속에서 노년기를 맞이하기보다도 단순히 의료기술의 혜택 등으로 생명의 연장과 죽음의 부정에만 급급한 채로 살아가면서 길고 긴 노년기와와의 싸움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다시 말하면, 빈곤이나 질병, 소외(고독), 무역할로 고통을 받으면서 단지 수명의 연장으로 삶을 영위해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장수를 바라보아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 1) 한서(漢書) 동방삭전(東方朔傳)에 나오는 이야기로 전한(前漢) 무제(武帝, BC 156-87)가 통치하던 시절에 살았던 동방삭이 장수(3,000x60=180,000년)했다고 전해지면서 삼천갑자 동방삭은 장수자를 의미함.
- 2) 그리스신화에 의하면, 새벽의 여신 Eos는 Zeus의 아들이자 Aphrodite의 애인이던 Ares와 함께 침실에 있다가 Aphrodite에게 발각되었으며, Aphrodite의 복수에 의해 Eos는 젊은 남자들을 탐욕하며 살아가야 했다. Eos는 Troy의 왕 Laomedon의 아들 Tithonus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Zeus가 Eos에게 애인을 위한 선물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을 때 Eos는 자신의 애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Eos가 자신의 애인이 영원히 늙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못했기 때문에 Tithonus는 늙어서도 죽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되었다.

고 생각된다.

다행히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경제적 여유와 함께 건강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노인들이 등장했는데, 그들은 정년퇴직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과거의 노인들과는 다른 삶을 추구하고 있다. 그들을 새로운 실버세대라는 의미로 ‘뉴 실버세대(new silver generation: 정년퇴직 이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령자 세대)’, ‘S세대 (silver generation)’, 또는 G세대 (gold generation, 황금세대)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신용카드를 처음으로 사용한 세대이자 상품의 질에 익숙한 세대로서 새로운 소비 trend를 좌우하기도 한다. 이렇듯 어려움과 풍족함을 동시에 지니며 노년기를 살아가는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그리고 다차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들을 위해 과연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노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느낄 것인가를 찾는 것인데, 우리는 이를 노인복지라 한다. 노인복지(welfare for the elderly people)는 노인(elderly people)과 복지(welfare)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복합명사로서 노인 개개인의 행복추구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노인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행복은 비단 물질적인 풍요만이 아니라 신체, 정신, 사회적 발달의 기회를 가져오는 것으로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다. 즉 노인복지는 노인의 복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활용으로서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이며, 노인의 필요욕구를 충족하게 하는 사회적 서비스이다 (양옥남 등, 2006).

노인이 바라는 행복은 성공적인 노화, 생산적인 노화, 건강한 노화 등의 개념과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중에서도 성공적인 노화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결국 노인복지 실현의 과제는 노인들이 인생의 후반기에서 성공적인 노화를 맞이하도록 돕는 일이고,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단일차원에서 해결하기보다는 노인 자신과 노인을 둘러싼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그 기본적인 생활환경이란 의식주에

관련되며, 이에 필자는 노인복지 실현 과제로서 의식주에서의 접근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노인을 위한 의는 단순히 의(衣)만이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의료적인 접근을 포함한 의(醫/衣)라 할 수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건강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최근 전체노인의 약 87%가 치매나 중풍 등 각종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노인의 14%가 보호를 필요로 할 정도가 되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미숙한 제도이더라도 일본의 개호보험을 모델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8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5)는 한방보건관광, 항노화기능성식품, 한방화장품 등 한방산업을 한국의 노인세대 건강관련 육성대상 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민간공급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사업은 실버세대의 보건 및 건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공급자 측에서는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 산업체, 학계의 진정한 클러스터 형성으로 건강관련 부분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관련 분야에 대한 사업체 지정 확대 및 마케팅 지원과 각종 세제, 광고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그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신동원, 2008).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의복은 노인들의 신체 조건과 장식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접근이 그리 쉽지는 않다. 즉 노인들은 피부의 건조와 면역기능의 저하를 보이기 때문에 의복이 피부에 닿는 생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움직임에 있어서도 젊었을 때보다 섬세함이 떨어지고 활동영역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또한 현대 노인세대들은 좀 더 젊거나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장식적이거나 미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편안하고 손쉬운 장소에서 용이하게 상품을 구입하기 원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라든지 가정배달 서비스를 통한 판매와 유통전략도 세심히 고려해야 한다 (김선화, 2008). 현재 한국에서는 의류관련 실버시장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버의류브랜드는 부족한 현실이다. 그 이유로는 노인 인체치수부족, 영세 규모의 의류업체, 과학적 접근

기술 부족, 패션의류 소재 빈곤, 디자인 전략 미비, 국내 유통시장 왜곡, 업종 간 협력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정삼호, 2008).

인간 장수의 첫째 조건으로 ‘잘 먹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노인의 건강 유지를 위한 식생활 관리는 필수적이다. 기네스북에 오른 최고령자였던 프랑스의 Jeanne Calment(1875-1997: 122년 164일 생존) 할머니도 장수비결 질문에 대해 ‘적당히 먹는다.’고 대답한 바 있다. 우리는 흔히 활성산소의 발생으로 인한 노화방지를 위해 소식을 권장하지만, 여기에서의 소식이란 적게 먹는다는 소식(小食)보다도 고기나 생선을 갖추지 않은 채식 위주의 소박한 음식이라는 소식(素食)을 의미한다. 곧 素食은 균형이 잡힌 영양소섭취를 말한다. 노인은 나이증가에 따라 근육활동이나 기초대사량 감소로 소량의 칼로리를 필요로 하지만 미량영양소의 요구량은 다른 연령층과 같으므로 영양밀도가 높은 음식이 요구된다. 또한 노인의 영양상태는 치아손실, 저작 연하곤란, 소화흡수력 저하, 미각기능 둔화 등의 생리적 변화 그리고 활동량의 감소, 노인 단독세대 증가 등으로 인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기 쉽다. 그리고 동시에 비만, 체중과다,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질병이 증가함으로 인해 만성퇴행성 질병이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건강한 식생활이 요구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식품개발이 미진한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노인 환자용 식품의 시장규모가 2005년도에 6,000억 엔으로 집계되었으며, 2010년에는 10,000억 엔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된 고령자용 식품 종류에는 농후유동식품, 저작연하 보조식품 등이 있고, 그 이외에도 신장병예방식품, 당뇨병 예방식품, PEM(protein-energy malnutrition, 부적절한 단백질 섭취로 인한 영양결핍) 예방식품 및 비타민, 미네랄 보강식품 등이 있다. 미국에서도 노인이나 환자용의 저작 연하곤란 보조식품으로 분말형태의 thickening agents[thickeners: 맛 등을 변화시키지 않고서 점도(viscosity)를 증가시켜주는 물질]가 상품화되어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의 기호도 조사를 통해 노인을 위한 조리과학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인의 영양보충,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식을 위한 실버식품 개발이 요구된다 (전순실, 2008).

노인생활을 돕는 주(住)의 접근을 살펴보면, 주택은 노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기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주생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인들에 맞는 적절한 공간, 즉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을 갖추어 주어야 한다. 노인은 기력이 쇠약해지고, 거동이 불편한 신체 조건에다가 노인 단독 또는 노인부부만이 거주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들이 주생활 공간을 이용할 때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도 가능한 한 홀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적절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도 개·보수를 통한 생활환경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또한 앞으로 노인을 위한 주택 건축에 있어서도 노인에게 어울리는 설계기법은 물론 무장애 디자인(barrier-free design), 장애맞춤형 디자인(adaptive design), 생애적용 디자인(life-span design),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barrier-free design에서 파생된 새 패러다임) 등과 같은 복지적 입장의 기반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주생활에서의 접근은 단지 주택과 주거시설에 한정되기 보다는 노인들이 살기 편한 도시나 지역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러한 것으로는 보도 및 접근로, 횡단보도, 지하도 및 육교, 주차구역, 버스 및 택시 승강장, 항만, 공항 등이 노인들의 이동특성에 맞는 디자인으로 설계되는 것이다 (이동희, 2008). 그리고 노인들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에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한곳에 모으는 실버촌락의 구성도 좋은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현재 전라남도 장성의 황룡강 부근에 100호 규모 노인촌락의 행복마을 조성이 그 예³⁾가 되며,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은퇴자 마을 조성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을 위한 IT기술의 활용은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출산의 감소로 인한 저렴한 인력의 고용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 앞으로 많은 기대가 요구된다 (조병록, 2008). 이러한 것의 예로는 노인의 간호, 보조, 청소, 경비, 심부름, 놀이친구 및 가족의 일원으로 지능형 로봇이 있으며, 치매노인

3) 2007년 6월 전라남도와 전남 장성군, 전남개발공사가 전남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치아지 일원 4만여 평 부지에 300억원을 투입하여 주택 100호 규모의 친환경생태 주거단지인 행복마을을 조성하기로 기본협약을 체결함.

의 배회 방지를 위한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tag, 센서를 통한 신체기능 측정, 원격진료, 유비쿼터스 실버 홈 시스템 등이 있다. 앞으로 신체, 기능, 감성적인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IT기술 개발이 시급하며, 이로 인한 실버산업 활성화는 더욱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5).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 김선화 (2008). 실버세대를 위한 패션. In 김선화 · 박종철 · 이동희 편, *u-IT 실버복지산업의 현재와 미래* (pp. 238-239). 서울: 푸른세상.
-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8 OECD 건강데이터*.
- 신동원 (2008). 실버의료 건강산업. In 김선화 · 박종철 · 이동희 편, *u-IT 실버복지산업의 현재와 미래* (pp. 242-244). 서울: 푸른세상.
- 양옥남 · 김혜경 · 김미숙 · 정순돌 (2006). *노인복지론*. 서울: 도서출판 공동체.
- 이동희 (2008). 노인을 고려한 주거환경 연구과제. In 김선화 · 박종철 · 이동희 편, *u-IT 실버복지산업의 현재와 미래* (pp. 253-257). 서울: 푸른세상.
- 전순실 (2008). 노인식품산업의 방향. In 김선화 · 박종철 · 이동희 편, *u-IT 실버복지산업의 현재와 미래* (pp. 240-241). 서울: 푸른세상.
- 정삼호 (2008). 실버의류산업의 특성과 디자인. In 이동희 등, *건강한 노년생활* (pp. 15-40). 전남 순천: 아트센터.
- 조병록 (2008). u실버산업을 위한 IT기술발전 방향. In 김선화 · 박종철 · 이동희 편, *u-IT 실버복지산업의 현재와 미래* (pp. 258-259). 서울: 푸른세상.
- Bloom, D. E., Canning, D., & Jamison, D. T. (2004) Health, wealth, and welfare. *Finance & Development*, 41 (1), 10-15.